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통 권 _ 제 198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6년 12월 24일



함즐함울

www.pcltv.org

아기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땅의 말구유를 택하셨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은 지난 주일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
우리를 위해 땀 흘리며 봉사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확인하는 성탄절

오늘은 12월 24일,
2006년 성탄절을 하
루 앞둔 강림절 마지

막 주일이다. 오늘 예배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강단에 세워진 다섯 개의 초중 네 번
째 초에 불이 켜지고 성탄을 축하하는 찬송과 메시지가
전해진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단순한 외침은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동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
친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요청한다. 성탄절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
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
운 이웃에게 다가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지난 주간, 한 지상과방송에서 자선냄비에 관한 특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동네(B)의 자선냄비를 비교한
것이다.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A는 B보
다 모금총액은 많았지만, 그 참여자 수는 훨씬 적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저소득층 지역의 사람들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더 풍요로운 삶을 사
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기사
였다.

교회는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수요일예배는 ‘이야기가 있는 찬양예배’
로 드려졌고 오늘 교회학교의 각부서는 성탄축하예배
로 모이며 특별히 오후 3시 30분에는 교회학교의 성탄
절 축하 발표회도 준비되어 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성탄절 예배가 있다. 영등포교회
원로목사인 방지일목사가 설교한다.

별 기사를 방영했
다. 부유층이 살고
있는 동네(A)와

나의신앙이야기	2면
행복한 부부 세미나	2면
교회학교 성탄 축하 행사	3면
동시통역 사역팀	4면

로 템 나 무

크리스마스 양말 Christmas Stockings

오늘날 크리스마스 양말은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가져다주는 요술보따리로 생각되
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
야기가 숨겨져 있다.

10세기의 기독교작가 Metaphrastes는 크
리스마스 양말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
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산타클로스라고
알려진 기독교사제 St. Nicholas가 여행 중에
가난에 굶주린 한 가정을 만나게 된다. 세 딸
을 둔 가정은 가난을 해결할 방법으로 자신
의 딸 중에 하나를 노예로 팔기로 결심한다.
딸을 판돈으로 결혼지참금을 만들어 다른
딸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반복되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노예로
파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고
민하며 있을 때 St. Nicholas가 그 집에 들어
가 다음날 신을 양말을 말리기 위해 난로에
걸어 두었던 첫째 딸의 양말에 두개의 금화
를 놓고 나왔다. 그 아버지는 이것으로 가정
파탄을 모면하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
나님께 감사했다.

벽난로위에 장식된 크리스마스 양말은 나
의 소원만을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려는 성서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

편집부, Traditions of Christmas
(ACE COLLINS, ZONDERVAN) 중에서



오늘의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
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
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시라, 전능하신 하나
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9:6)



MERRY CHRISTMAS!

교회학교 성탄축하 발표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눅2:20)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성탄축하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대예배실

연말정산 서류 인터넷 신청

www.pcltv.org 클릭!

교회 홈페이지(www.pcltv.org) 메인의 하단에 있는 “인터넷사무실”을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이야기가 있는 성탄절 찬양예배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성탄절을 며칠 앞둔 20일 저녁,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는 예수탄생을 미리 축하하는 단란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예배는 크게 호산나 찬양대와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엄숙한 성경교독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본 예배에 앞서 중국의 기독교 청년들이 무대로 나와 특별한 성탄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마이크를 쥔 한 중국인 자매는 중국 청년들이 세계선교를 위한 비전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며 '중국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를 맡은 신화식 목사는 갈라디아서 4장4절~5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통해 세상에 나오셨고, 이는 예수

님 또한 인간의 불완전성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예수님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의 기복과 육체적인 고난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목사는 '그러므로 우

리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고행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값진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산나찬양대와 성도들의 캐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극팀에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연극도 공연되었다. 한 평범한 여성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 연극은 성도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예배 후에는 어릴 적 부르던 다양한 동요들을 한 번 더 흥겹게 부르면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기도 했다.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을 가득 채운 성도들은 찬양예배를 통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라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라니(눅2:11-12)

행복한 부부 세미나

올해를 보내며 가정사역팀은 30일날(토) 오후 7시에 중예배실에서 모든 교우를 대상으로 <행복한 부부세미나>를 개최한다. 아버지 학교의 교장, 김성묵 장로와 부인 한은경 권사를 강사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첫 번째, 남녀의 차이, 두 번째, 성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부부로서 혹은 남자와 여자로서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 경험했던 남녀의 차이와 성 이야기는 현재 부부문

제를 진단해 보며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6시까지 교회에 도착하면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강의에 참석할 수 있다. <행복한 부부세미나>는 동부지구와 아버지학교가 협력해서 주최하는 것이다.



나의/신/앙/이야기

“애들아, 미안하다! 너희는 늙은 엄마를 만났구나”

“애들아 미안하다. 다른 반은 다 젊은 엄마인데...너희들은 늙은 엄마를 만났구나...”

기도 엄마는 정신여고 아이들을 만난 첫 시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은 그들을 만나는 순간마다 점차 사라져갔다. 아이들은 분명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기도어머니의 '진심'으로 인해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기죽어 있는 엄마를 달래는 아이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한 학기 동안 학원선교부 기도어머니로 정신여자고등학교의 딸들을 새롭게 만난 김소희성도는 아이들을 만나는 마지막 시간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의 편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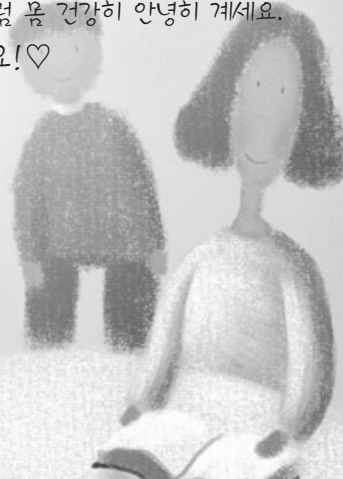
기도어머니께...

안녕하세요? 저는 나영이에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벌써 2006년의 마지막인 12월이 되어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1년 동안 어머니와 같은 조 친구들과 정도 많이 들었는데...이제 마지막 수업이 끝나면 얼굴 볼 기회가 없어져서 슬퍼요. 1년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좋은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시험기간마다 고백고백 전화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친구들과 어머니와 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를 많이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3학년이 되어서도 계속 성경시간을 갖고 싶어요. 계속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어머니도 만나고 싶고...이번 한 해 동안 정말 좋은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고3때 공

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가면 저희 조 애들끼리 어머니 찾아 뵙게요. 그때까지 저희 잊으시면 안되요...그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각자가 원하는 대학 갈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뽕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엄마 사랑해요!♡





[유년부] 율동과 찬양

오늘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성탄발표회를 위해 율동과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유년부의 어린이들은 저마다의 술을 들고 연습에 한창이었다. 약 20명의 여학생들과 7명의 남학생으로 구성된 발표팀은 지난 5주간 매주 일 12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꾸준히 연습을 해왔다.

율동과 찬양 지도를 담당한 진승미교사는 작년에는 화려한 볼거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미하는 것에 신경을 썼다고 했다. 여학생들이 율동의 전체 구도를 잡고 숫자가 적은 남학생들은 재미유도를 위해 다소 자유분방하고, 코믹한 춤을 선보이게 된다. 진승미교사는 어린이들이 힘들어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율동 습득력이 빨랐으며 어린이들이 평상시에 참여했던 찬양예배를 기본 틀로 구성했기 때문에 보다 쉽게 동작과 대형을 익힌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유년부의 율동과 찬양은 반짝이는 술을 들고, 힘차게 율동하는 20명의 여학생들과 쫄바지, 쫄티의 에어로빅을 입은 감쪽한 7명의 남학생들의 코믹한 동작이 대조를 이루며 어우러질 것이다.

[유치부] 성탄축하발표회를 위한 칸타타 연습

유치부 역시 오늘 오후 열리는 교회학교 성탄축하발표회를 위해 어린이들과 칸타타연습에 한창이었다. 추수감사절이 끝난 11월 중순부터 매 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연습을 해온 유치부학생들은 '예수님 탄생사건'에 대한 곡을 연습하고 있었다. 이번 칸타타를 맡은 김지수교사는 작년에는 율동위주의 곡을 했었으나 이번에는 차분한 곡을 택하여 탄생사건에 대해 흐름을 서사적으로 잡아가는 방향으로 연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회칸타타의 특성상 정확한 발음이 중요하므로 그 부분에 집중하며 연습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주(17일)에는 마지막곡을 연습했다. 어린이들은 목자, 동방박사, 천사의 모습 등을 동작으로 따라해보며 즐거워했다.



어린이들의 연습을 지켜본 한 교사는 자기 몸통크기만한 악보를 들고, 글도 잘 모를 나이에도 열심히 선생님주위에 둘러 앉아 연습하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전했다.



[영·유아부] 성탄축하연합예배

지난 주(17일)에는 영아부실에서 영아부와 유아부의 연합예배가 있었다. 영아부실을 가득 메운 유아들과 선생님들은 성탄축하예배에 참여하며 함께 기뻐했다. 지난 주일은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교사 연극이 있었다. 막뒤에 숨어 움크리고 앉은 교사들은 인형을 전후좌우로 흔들며 유아들의 시선을 모으고 성탄의 아름다운 메세지도 전했다. 유아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둘러 앉아 흥미롭게 관람했다. 취학전부서에서는 어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매주 진행된다. 교사리같은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리고 입을 크게 벌려 찬송을 부르는 모습은 마치 천사를 보는 듯 하다.



1층 로비,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중등부 교사와 학생들이 적은 크리스마스 카드가 달렸다. 자그마한 색지에 적힌 다양한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소박한 소원들로 가득 차 있다.

●년 초에 교사사역이 힘들어 갈등하다가 용기를 내 시작한 한해가 정말 뜻 깊은 은혜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은 주님을 찬양해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저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참을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지난 가을 남편을 저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저의 소망은 스터프스봉사로 남은 저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제 동생의 기정을 지켜주시고 그 아이의 마음을 잡아주세요.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주세요... ●새해에는 우리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Koten 꼭 가고 싶어요. 궂.궂 열심히 일하세요.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베리크리스마스! P.S 하나님 저는 이름을 말할 수 없으니까 별명 알려드릴게요. 제 별명은 공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머니로서 한 아이에게 늘 사랑으로 다뤄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것 감사하구요... 이제 저 고등학교 기는데 3년동안 힘들더라도 함께 해 주세요. 또 우리 아빠 아직 교회 안다니시는데 꼭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P.S 댄스도 꿈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2006년 한 해에 저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해요. 2007년에는 저의 속사람을 연단하여 진정한 새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세요. ...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들의 길로가 하나님 예비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12월 30cup예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영혼이 찬양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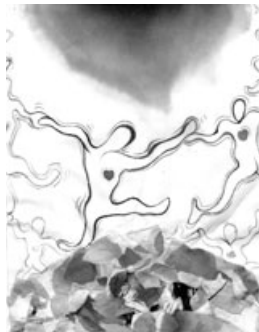
진 성탄축하예배는 CCM보컬팀 소울싱어즈와 소울싱어즈 맨이 함께 했다. 오프닝 순서를 맡은 이들은 '주님의

12월 30cup 예배가 지난 주 일 오후 대예배실에서 있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는 제목으로 드러

높고 위대하심' 등을 부르며 넓은 대예배실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찬양의 소리로 가득 매웠다.

김현령목사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디모데후서1장 7절의 말씀으로 해석해 가며 성탄의 의미를 설교했다. 처녀 마리아가 아기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두려움을 거두어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셨다고 전했다.

설교 후에는 함께 찬양을 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예배 중에 보여진 김옥진 자매의 그림자극과 황아람 자매의 그림은 마리아의 고뇌와 기쁨을 상징하면서 예배의 메시지 전달을 더욱 은혜롭게 도왔다.



Misson 함글함글, 표준어사용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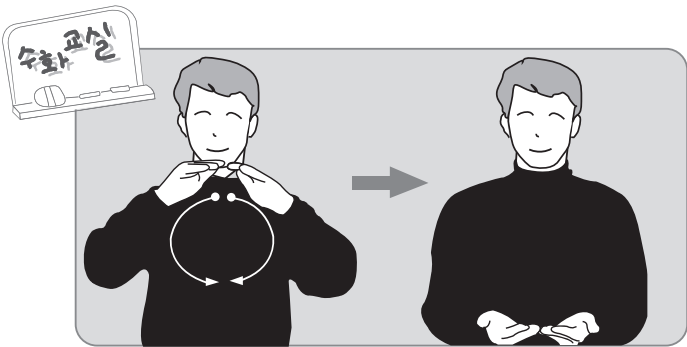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아름다운 기부,
훈훈한 '세밀' 풍경



"한 해가 끝날 무렵"을 흔히 '세모'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주 쓰는 이 '세모'는 일본말 찌꺼기입니다. 일본에서 歳暮라고 쓰고 세이비세이바라고 읽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세모'를 '세밀'으로 다듬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세모는 일본어 찌꺼기니 쓰지 말고 '세밀'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종 신문에서는 '세모에 구세군과 함께..', '세모조찬 자리에서 정책실패..' 등의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모'보다는 '세밀'으로 순화하여 씁시다.



모두 all, whole
양손을 펴 반원을 그리며 모은다

교회생활 이모저모

장애인 사역팀 모집

장애인 사역팀에서는 2007년 장애인 봉사 사역에 참여할 성도들을 모집합니다. 사역에 참여하게 되면 지체부자유 장애우와 청각 장애우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문의: 신형섭 집사 019-628-7957

독거노인 내복 보내기



중랑노인복지관내의 독거노인들에게 내복을 보내기 위한 성금 모으기 행사가 12월17일 주일에 로비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독거노인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 이웃돕기 행사다. 90여명의 성도들이 참여해서 100분여명의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정성을 전달했다.

요람 사진 촬영



2007 교회요람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이 다음주까지 진행됩니다. 등록 교인 중 사진을 찍지 않으신 분이나 기존 요람에 흑백사진이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세요

시간: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1시 30분
장소: 1층 소예배실 왼쪽입구

함글함글 기사모집

함글함글은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원시는 분은 아래를 참조해서 hamnews2006@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기사는 함글함글편집회의를 거쳐 신문에 게재됩니다.

〈로템나무, 나의 신앙이야기〉작은 사건이나 생각속에서 발견한 감동과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 A4 1/4 분량

〈구역모임, 사역부서 이야기〉서로에게 사랑과 덕을 쌓는 공동체 이야기 A4 1/3 분량

함글함글 기사모집

문의: 김기용 안수집사 010.9600.2664

주님의교회 신문인 함글함글에서 함께 봉사할 사역자를 찾습니다.

〈통역봉사팀을 찾아서〉

길 잃을지 모르는 한마리 양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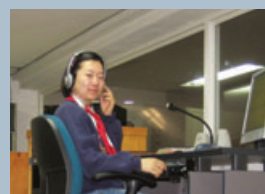
어느 교회나 리시버를 쫓고 예배에 참석하는 외국인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본 교회에서도 외국인 예배를 돕기 위해 동시통역팀이 5층에서 2-3부 예배시간에 통역봉사를 하고 있다.

기자는 3부예배 시간에 5층 통역 대기실을 찾았다. 안내 집사님 (나혜원 봉사자)은 24번이 쓰인 통역기를 대여해 주었다. 기록부에 전화번호와 이름을 간단히 기록한 후 예배실로 들어와서 리시버를 귀에 쫓았다. 잠시후 리시버에서 또박또박 목소리로 "Do you feel ..however..."

but,... jesus,... love..."가 들린다. 목사님의 설교는 쉽고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되어 전달되었다. 주변을 돌아보았다. 리시버를 쫓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나집사님은 몇주전까까지 외국인이 예배 참석하여 통역기를 빌려갔는데 요즘은 뜸하다며 40대 장년 3-4명이 통역기를 찾는다고 했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99명의 양보다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1마리의 양을 위해 봉사하는 동시통역팀에게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겼다.

현재 동시통역팀에는 4명의 통역자(대장-한진희, 통역봉사자-강현아, 최수진, 황선경)와 2명의 데스크 봉사자(태재승, 나혜원)가 수고하고 있으며 더 많은 봉사자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교회통역팀은 과학저널지, 국제 아리랑방송 아나운서, 삼성SDI, 외교통상부 통역관으로 근무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 초중고생의 듣기 훈련, 토익준비생의 학급교재로는 최상급이므로 어학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5층 예배실을 찾으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Interpretation Provided

We Invite You to Hear
Today's Sermon Through English Interpretation
• Service Desk on the 3rd Floor
• Service available for 2nd & 3rd Services

[동명가족의 밤] 가족과 함께한 사랑의 잔치



지난 12월 21일(목)에는 동명노인복지센터(원장 김병한 집사)가 주최하는 제5회 [동명 가족의 밤]이 열렸다. 매년 성탄 주일에 열리는 가족잔치에서는 요양 어르신들이 가족과 한데 모여 지난 한 해를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또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힘들더라도 여호와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사41:10)을 믿으며 나아가자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동명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 전문 요양시설로 53분의 인지 기능 장애 어르신과 외상 어르신들이 요양 중에 있다. 동명가족의 밤은 소외되고 힘든 어르신들과 사랑의 힘으로 봉사하는 복지사들의 많은 노고를 알게 된 귀한자리였다.

